

국외출장보고서

- 출장자: 유삼현 부연구위원
- 출장지: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일리노이 시카고
- 출장기간: 2017년 4월 24일 ~ 2017년 5월 1일
- 출장목적
 - 결혼 및 출산변동에 관한 최신 연구방법 습득 및 논의
 - 각국 인구형향 분석결과 및 연구동향 파악
 - 미래 인구 및 가족 관련 이슈발굴
 - 미국 등 각국 최신 통계자료 및 최근 연구자료 수집
 - PAA학회 논문 구두발표 및 토론

■ 세부활동

년월일	행선지	방문기관/면담자	활동사항
2017.4.25	미국/매디슨	서울(인천)출발	
2017.4.25	미국/매디슨	Univ. of Wisconsin-Madison/ Prof. James Raymo Dr. Setsuya Fukuda Dr. Mikko Myrskylä	비규범적인 출산행위와 가족형성 과정이 갖는 함의와 정책대응 논의
2017.4.26	미국/시카고	도시간 이동 (매디슨-시카고)	
2017.4.27	미국/시카고	Prof. Hyunjun Park(Univ. of Pennsylvania)	현지 진행 중인 <Korean Millennials> 및 한국 청년연구에 관한 연구결과, 향후계획, 연구협력방안 논의
2017.4.28	미국/시카고	Prof. Samir K.C. (Shanghai Univ. & IASA)	교육 및 도시화를 반영한 인구추계의 중요성,현진행상황,국내적용가능성,향후공 동연구등협의
2017.4.29	미국/시카고	PAA세션(208)논문발표	PAA 세션208(Effects of Son Preference)논문 구두발표 및 토론
2017.4.29	미국/시카고	Prof. Sarah Hayford (Ohio State Univ.)	미국 내 원치 않는 임신에 관한 연구 및 저출산 사회에서의 함의
2017.4.30	서울(인천)	시카고 출발	
2017.5. 1	서울(인천)	서울(인천)도착	

가. 미국 Univ. of Wisconsin-Madison Prof. James Raymo 방문

- 1) 일시: 2017. 4. 25. 수 17:00~21:00
- 2) 장소: Univ. of Wisconsin 캠퍼스 내 식당
- 3) 참석자: Prof. James Raymo (Univ. of Wisconsin-Madison), Dr. Setsuya Fukuda(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Japan), Dr. Mikko Myrskylä(Executive director,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Germany), 유삼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세부내용: 출산 및 혼인에 관한 최신연구 및 합의

- 출산 및 혼인유형의 교육을 포함한 사회계층별 변화는 사회변화 및 인구변동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함
- 혼인 및 출산행위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높은 사회계층이 향유하는 반면, 10대 출산, 혼외출산, 동거, 비혼, 이혼 등과 연계되어 건강, 교육, 소득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산물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diverging destinies)이 미국뿐 아니라, 동유럽 및 일본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예컨대, 10대 후반 여성의 출산이 특별히 사회적 약층에 집중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하게 남아 있거나, 사회적 양육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국처럼 저출산이 지속되는 반면 혼외출산의 변화가 미미한 경우, 10대 여성의 출산, 동거, 비혼, 임신 후 혼인하는 경우 등 비규범적인 출산행위 및 가족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다른 사회와 비교하는 연구들이 요구됨

나. PAA참석자 개별미팅(1)

- 1) 일시: 2017. 4. 27. 목, 7:30~8:30
- 2) 장소: Hilton Chicago 근처 식당
- 3) 참석자: Prof. Hyunjoon Park (Dept. of Sociology, Univ. of Pennsylvania), 유삼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세부내용: <Korean Millennials> 및 한국 청년연구에 관한 협의
 - 지난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지원을 통해 향후 5년간 한국에서 1980년 이후 출생하고 2000년 이후 성인이 된 세대들의 교육, 혼인, 출산, 주거 등 생애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로 국내외 학자들과 공동과제로 진행하고 있음
 - 젊은 세대들이 높은 교육수준을 갖지만, 동시에 높은 청년실업율과 낮은 혼인율, 그리고 주거문제 등에서 과거 세대와 전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음
 - 장기적으로 교육, 혼인, 출산, 주거, 가구 등 각 분야별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절대적·상대적 수준에서 교육집단별 차이를 검토해 보고자 함
 - 해당 과제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교내 동료들 (Population Studies Center) 역시 한국 인구 및 가족에 관심이 많은 만큼, 향후 자료협조,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적극적인 연구협력을 기대함

다. PAA참석자 개별미팅(2)

- 1) 일시: 2017. 4. 28. 금, 14:00~15:00
- 2) 장소: Hilton Chicago 호텔 내 카페
- 3) 참석자: Prof. Samir K.C. (Shanghai Univ. & IIASA), 유삼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세부내용: 교육 및 도시화를 반영한 인구추계
 - 교육수준을 반영한 세계인구추계 결과를 지난 2014년 발표 및 출판하였고, 현재 그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화(도시/농촌) 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인구추계를 진행중
 - 인도 및 중국의 각 주별 도·농별 인구추계 과정에서 자료의 제약, 시나리오 설정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추계방법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해당 추계결과가 조만간 출판될 예정

-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료의 질이 높고 향후 활용가능성도 높은 만큼 관련연구가 시작된다면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할 예정

라. PAA세션 논문발표(208: Effects of Son Preference)

- 1) 일시: 2017. 4. 30. 토, 9:00~10:30
- 2) 장소: Hilton Chicago Continental C
- 3) 참석자: Prof. Terrence Hull(Australian National Univ.), Sylvie Dubuc(Univ. of Oxford), Eleonora Mussino(Stockholm Univ.), Shucia Yang(Xi' an Jiantong Univ), 유삼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세부내용: 남아선호의 영향
 - 확률모형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매우 작은 비중의 부모들이 성선택 출산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출산력 수준이 낮다면 매우 심각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성역할이 평등하다고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아시아 및 동유럽 출신 이민여성들의 출산간격을 분석해 보면, 남아가 아직 없을 경우 다음 출산까지 기간이 더 짧아지는 형태로 남아선호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출생성비는 급격한 증가세에서 200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도농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던 출생성비가 점차 감소함과 동시에 도농간 인구이동에 의한 것으로 여겨짐
 - 정상범위의 출생성비를 회복한 한국의 경우, 출생성비가 초음파기기 도입 이전부터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출생성비의 증가 및 하락과정이 거의 모든 집단에서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짐. 다만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성비불균형을 보였기에,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마. PAA참석자 개별미팅(3)

- 1) 일시: 2017. 4. 30. 토, 14:30~15:30
- 2) 장소: Hilton Chicago 인근 식당
- 3) 참석자: Prof. Sarah Hayford (Dept. of Sociology, Ohio State Univ.), 유삼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세부내용: 미국 내 혼외출산 및 의도하지 않은 출산 연구
 - 미국 내 혼외출산은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최근 연구동향은 교육이나 인종 등 사회계층에 의한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혼외출산의 결과로 초래되는 자녀들의 교육, 소득, 생애과정의 차이에 집중되고 있음
 - 원치 않는 출산은 의도하지 않은 출산(unintended births)과 시기가 맞지 않은 출산(mitimed births)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요소 모두 인종 및 교육 등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며, 동시에 모자보건뿐 아니라, 아이의 돌봄, 건강, 교육 등 생애과정의 차이를 초래하며, 피임행태, 출산계획, 출산전 산아조절행태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사회계층에 따라 차별을 보임
 - 미국 내 원치 않는 출산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추세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측정방법 및 변화 원인을 살펴보고 있음

- 원치 않는 출산은 의도하지 않은 출산(unintended births)과 시기가 맞지 않은 출산(mitimed births)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요소 모두 인종 및 교육 등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며, 동시에 모자보건뿐 아니라, 아이의 돌봄, 건강, 교육 등 생애과정의 차이를 초래함
- 적절히 준비되지 못한 출산의 경우, 산후우울증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을 낮추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자녀 및 부모의 삶의 질을 낮춤으로서 추가적인 출산으로의 이행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저출산이 지속되는 한국 및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꼭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